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53> 마조의 선택이 동쪽으로 가다

부산 일광에 있는 묘관음사는 항국(1912~1978)선사의 열반지이다. 영정도 모셔져 있다. 절친한 도반이었던 성철선사의 '항국을 보내며(哭香谷)'라는 조사(卍詞)는 역설적 미학의 경지를 잘 보여준다.

슬프다! 중문의 흉악한 도적놈아/천상천하에 나같은 놈 몇이나 되리/인연이 다하여 손을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의 말이 되었는가, 서쪽 집의 소가 되었는가/ 찢뜯, 갑을병정무 기경(甲乙丙丁戊己庚辛)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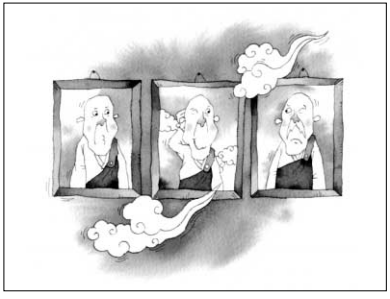
묘관음사의 조사전에는 다른 선원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영정이 모셔져 있다. 마조선사와 남전보원, 백장회해 3인을 함께 모신 것이다. 그런데 그 화면구성이 고개를 가웃거리게 한다. 맨오른쪽 끝에 마조선사가, 가운데 남전보원, 왼쪽에 백장회해가 앉아있다. 역사적으로 마조의 3대 제자는 서당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으로 알려져 있다.

스승이 오른편 구석에 보쳐(補處)처럼

오대산 문수도량을 참배한 이후 육조단경 설법처인 보단사(寶壇寺)에서 다시 계를 받았다. 선종승려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때는 각 종파마다 승복 색깔이 달랐다. 그래서 종파를 바꾸는 것을 '옷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영당을 참배하였다.

여기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영당 입구에 명적이 써져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참배고 나오니 역시 저절로 닫혔다. 때 마침 바람이 두 번이나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육조께서 당신의 적손(嫡孫)으로 인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 때 이미 육조와 마조는 열반했다. 마조가 활약했던 강서 홍주 개원사에는 그의 제자 서당지장 선사가 마조가 풍대로 밭을 파고 있었다. 명적은 서당지장의 문에서 안목이 열렸고 스승의 인가를 받으



### 마조가풍 이은 서당지장, 도의국사 인가하며 "이 사람 아니고 그 누구에게 법 전하리"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거나 제자인 남전보원이 가운데 우뚝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 의의하다.

조사행화의 기본구도에 대한 미술적 안목도 없으면서, 애써 모셔놓은 남의 절 조사영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대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원성 후 마지막 칠년에 강이아 풀린 불모가 그 이름을 잘못 기록했는지도 모르겠다. 즉 3인의 이름에서 잠시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 짐작으로는 서당지장을 마조도일로 오기(誤記)한게 아닐까 한다. 만약 명적 선이오기면 더 깊은 뜻이 있는지도...

비록 그 영정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서당지장은 한국선종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도의국사는 왕씨이고 북한군(北漢) 현 서출신으로 선덕왕 5년 784년에 당나라로 건너가 40여년을 그 곳에서 살게 된다. 그때 이름은 '명적(明寂)'이었다.

면서 '도의'라는 법호를 받게 된다. 서당지장은 도의를 인가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아니고서 그 누구에게 법을 전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육조해는 선사도 남방출신이라 중원사람들에게 오랑캐 소리를 들었는데 신라 변방사람이 더 말해 무엇 하랴. 선이록 곳곳에 등장하는 "화상 신라를 지나가 버렸다"는 속담은 '이미 늦었다' '턱도 없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런 풍토 속에서 스승에게 이런 찬사를 받았으니 그 인물의 출중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장회해 역시 그를 보고서 "마조의 선택이 모두 동쪽으로 가느구나"라고 한 마디를 더 거들었다. 이 언급처럼 신라 구산선문의 대부분은 마조계열이다. 즉 마조도일의 법맥이 해동 조계종의 원류이다. 그래서 해동선종 최초 전법지 설악산 진전사 조사전에는 마조와 서당지장의 영정도 함께 봉안해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내가 이미 부처' 자각해 드러내기

좌선을 통해 본래불성을 스스로 깨닫는 목조선(默照禪). 침묵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기 불성을 들여다보는 수행법이다. 화두를 들고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간화선(看話禪)과는 '들어서는 문과 가는 길'부터 다르다. 때문에 간화선은 목조선의 이 같은 수행법을 놓고 "나루나 돌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고목의 선(대해 종고)"이라 비판까지 했다.

그럼, 목조선은 '죽은 선(死句禪)'인가? 그간 수행자를 만나보기도, 배울

기회도 드물었던 목조선 수행이 최근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깨달음이 곳곳에 드러나 일상사 모두가 공안이란 '현성공안(現成公案)'과 본래불성을 자각케 하는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원리를 고갱이로 삼은 목조선은 알려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목조선 수행의 보급에 힘쓰고 있는 목조선종 중정 법해 스님과 목조선 연구자 김호귀(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법사에게 '목조선'에 대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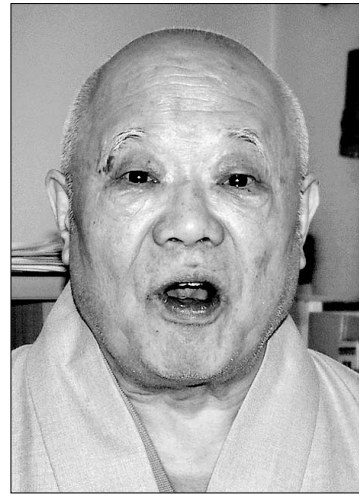
#### 좌선을 통해 '진법(眞佛)' 자각

목조선 수행의 핵심은 무엇일까? 좌선을 통해 본래불성을 자각하는 '본증자각(本證自覺)'에 있다. 몸으로는 묵묵히 좌선으로 일관하는 '묵(默)', 마음으로는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조(照)'가 목조선 수행의 고갱이를 이룬다. 법해 스님은 목조선의 기본 선지를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에게 본래 불성이 있지만, 깨치질 못해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라며 "끝없이 닦아 그 빛을 내야 비로소 자신에게 진불이 있음을 깨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호귀 법사는 묵과 조를 몸과 마음에 배치했다. 몸으로는 묵묵히 좌선하고,

#### 목조선 수행에 관심 고조



법해 스님

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화선 입장에서 화두의 필요성을 드러내려고 하니, 자연히 목조선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 황금 덩어리와 산돼지

스님은 목조선풍을 드날린 남송대 공경지 선사(1091~1157)가 비유로 들었던 '황금 덩어리와 산돼지'를 말했다. '땅속에 있는 황금 덩어리(목조)를 산돼지(간화)가 파내면 파낼수록 황금 빛은 더 빛난다'는 공경지 선사의 말을 언급하며, 목조선은 무시하고 간화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김법사는 중국 남송대 당시 간화선 비판을 지금의 비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간화선 일색의 선수행 풍토란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산돼지'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김법사는 목조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이유가 없고, 다만 목조선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법사는 "목조선은 중생 스스로가 깨침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행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활용하고 드러내는 측면에서 목조선은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준다"고 말했다.



김호귀 법사

#### 깨침의 상태를 돌이켜보라!

목조선의 키워드인 '현성공안'과 '회광반조'는 무엇일까? 법해 스님은 목조선의 대표어록인 중국 원대 만송 행수 선사가 지은 <종용록(從容錄)>을 예로 들며, 현성공안은 완만한 경사처럼 부드럽고 유순한 공안관이라고 말했다. 무념·무상으로 일관하되, 물 흐르듯 여여(如如)한 상태에서 일상사를 공안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김법사의 입장도 마찬가지로였다. 현성공안은 수행의 결과로 드러난 깨침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공안 그대로가 진리가 된다고 말했다. 가령 감나무에서 감이,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 있는 이 사실이 바로 현성공안이라는 것이다. 일체중생살유공안(一切衆生悉有公案)이란 셈이다.

#### 좌선의 좌(坐)는 '생동하는' 좌

좌선을 강조하는 목조선. 그럼 일할 때 좌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법해 스님은 좌선의 '좌'자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좌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를 '앉는다'는 개념보다 '지(止)' '정(定)'의 뜻으로 이해해야 오지부동의 묵묵하고 적정한 경지로 좌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면

일상사 모든 상황에서 '생동하고' '움직이는' 좌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법사도 좌선이란 말을 '반드시 한번 정도는 앉아서 수행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김법사는 발심과 호흡을 강조했다. 율곡은 발심은 잘 가다듬은 호흡에서 완성되고, 이후 몸 수행인 좌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행선(行禪)과 선어록 읽기도 병행

과중한 업무와 번잡한,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목조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해 스님은 "시간 나는 대로 그 현장에서 5분이면 1시간이든 앉아서 선의 세

#### 올곧은 발심·호흡 중요

#### '목조명' '종용록' 등

#### 게송·어록 반복해 읽어야

계로 빠져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법사는 공경지 선사가 지은 <목조명> 등과 같은 게송이나 어록의 독송과 목조선의 대표적인 어록인 <종용록>을 반복해서 읽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환주는 본래는 연애 자료를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평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문가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나 허리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여,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아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저수 데진 합장

# 간(肝)이 건강하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리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만들어낸 뒤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떨어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 명당을 만들어 주면 돈이 바뀝니다 명당 옥력방

명당이 건강을 만든다. 주면 돈으로 바뀌어 좋게 된다. 집이나 공장이나 조상묘지터를 찾아가 보십시오. 땅이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월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편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째이다. **명당옥력방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번인 첫번째 전회주이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첫번째명당옥력방은 각 시찰, 양지,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명당이 건강을 만든다. 주면 돈으로 바뀌어 좋게 된다. 집이나 공장이나 조상묘지터를 찾아가 보십시오. 땅이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월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편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 안이 가질적, 천포, 사무직 차방을 해보십시오.  
◆ 땅이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뀌어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계나 삼계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러구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안좋은분. 본명은 명당옥력방 기묘 처방을 해보십시오.